

육용원종계 4사, 물량 감축에 공감!

- 원종계 적정수수 12만 수에 동의, 미등록종계장 10월 1일부터 분양 금지키로 -



2005년 하반기 육용원종계 자율쿼터제 파기 이후 금년까지 육용종계사육수수 증가로 인해 종계 업계는 물론 육계업계가 장기간 불황을 겪고 있다. 원종계 적정쿼터물량을 설정해 업계의 대승적 합의가 필요로 할 시점에서 대안 모색을 위해 지난 7월 15일 본회 회의실에서 육용원종계 4사 업체 실무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좌담회를 열었다. 본회 최성갑 종계·부화분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 홍보팀 -

❖ 참석자

양계협회 최성갑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임지헌 주무관, 삼화육종 이상배 이사, 한국원종 인경섭 대표, 하림 권정택 상무, 마니커 최종집 이사(무순)

자율쿼터제 12만 수로 합의

2005년도 하반기 육용원종계 자율쿼터제(94,000수) 파기 이후 2006년 141,000수, 2007년 158,533수가 수입됐고, 금년에는 161,000수가 수입될 예정으로 2년여 만에 2배에 가까운 수입물량이 급증했다. 자율쿼터제가 시행된 2004년에 비해 금년에는 육용실용계가 1억 4천 수가량이 추가 생산될 것으로 보여

짐에 따라 과잉물량으로 육계시장의 불황이 예고되는 현시점에서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육용원종계 4사는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4사 원종계 업체는 공감의사를 표했다.

육용원종계 4사 실무책임자들은 국내 종계·부화산업에 대한 수급안정대책과 관련 장·단기적인 양계산업의 안정화 및 발전방향에 대해 지난 2005년에 시행한 9만4천 수는 탄력성이 없어 단시간 내에 무너진 경험에 비릇, 금년 원종계 적정수수는 유동성을 갖고 여유 있는 움직임을 위해 국내 원종계 자율적인 적정쿼터물량에 대해서는 12만 수(D-line 기준)로 합의하였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

기존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마련과 정부자금 활동 등을 통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정부에 적극 요청했다. 미국, 유럽 등지의 축산 강대국처럼 앞으로는 법률 등 정부의 강력한 제지가 뒷받침 되어 규제가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산업전반의



진행에 분회 최성갑 종계·부화분과위원장

수급조절을 위해 협회차원에서 방안 강구하고 예전에 폐지되었던 축산법상의 강제감축명령제도 운영의 부활을 요청하는 등 수급조절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년 10월 1일부터 등록종계장에 한해 종계 분양

육용원종계 4사는 금년 10월 1일부터 종축업 등록농장에만 종계를 분양기로 협의했다. 무등록 종계장의 난립으로 종계입식 수의 증가 및 질병의 우려가 심화된 가운데, 10월 1일부터 육용원종계사에서 분양되는 종계는 본회에서 추진 중인 종계 Data-Base 구축 사업에 등재된 농장(등록종계장은 노란색 스티커, 종계장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육성농장 및 성계농장은 녹색스티커가 농장 계사에 붙어져 있음)에 한하여 분양기로 했다. 원천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 설정으로 종계 분양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종계분양이 목표이다. 한편, 육성종계장의 경우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종축업, 축산업 등록을 받을 길을 열어주어 추후에는 일반 종계장과 같이 등록된 육성종계장에 대해서만 사육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원종계 회사에서 이 같은 조항을 불이행할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과 점검방법이 필요하다고 전했고, 업계별 감축방안과 쿼터물량 배분 및 향후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제도적인 부분은 오는 8월 중 실무책임자 회의를 진행하여 조율기로 했다. **양계**